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 544—0610 544—0611
月刊/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등 록 일 : 1988년2월19일

會訓
誠實 · 奉仕 · 創意

'88漁港시설공사 懇談會

災害에 對備, 堅實施工토록

어민與論수렴 誠實수행

李東培수산청장 企業倫理확보에 앞장당부

수산청은 5월 20일 하오 2시 대회의실에서 88어항시설공사간담회를 열고, 올림픽이전 주요공정을 완성할 것과 재해에 대비하여 견실시공을 하도록 당부했다.

21개 도급사 대표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李東培수산청장은 인사를 통해 올림픽주최국의 국민으로서 「선진한국인상」을 진작하여 밝고 건전하며 긍정적인 국민심리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적 일체감 조성과 기업윤리 확보에 어항업계가 솔선수범하도록 당부했다.

金是文시설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에 이어 건의 및 애로사항을 토의한데 이어 이동배수산청장의 인사, 김시문시설국장의 당부사항, 조홍제어항과장의 어항시설 현황설명 그리고 결의문 채택순으로 진행됐다.

이동배수산청장은 인사에서 의식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말하고, 총체적인 정화운동에 지도층이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시문시설국장은 「어항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올림픽이전 주요공정을 완성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견실시공은 물론 태·폭풍으로 인한 관급자재의 손실, 시공구간의 파손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강구하도록」 말하고 특히 어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며, 설계서 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되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신속히 대처하도록 촉구했다.

김시문국장은 또한 공사현장 사무실과 숙소시설의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노임의 적기지불 등으로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며, 실험기자재를 현장에다 비치 운영해야 하고 단종공사 면허를 받은 업자에게 해당 공정을 도급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설명된 어항시설현황과 채택된 결의문〈아래별항 참조〉은 다음과 같다.

■어선 안전 수용을 위한 추진계획
—완공률 저조(28·7%)로 어선안전수용 미흡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로 91년까지 전 어항 기본시설 완성
—2000년대 어항 수요의 완전 충족을 위하여 기본시설 완성전에 이용도 여건 변동 등을 판단, 항종 재조정
—노후, 취약, 미진시설을 보수, 보강, 확충 및 쾌적한 어항으로 건설하여 다양한 어항 기능을 수행, 자연자원의 소득원화
—소규모항(1, 555개항) 88부터 내무부로 이관

■피해 예방 대책
—해역별 심해파 및 천해파 추정
—1·3종어항 시설물 안전도 진단 실시
—2종어항에 대한 시공 기술지도 추진

施設피해 最少化지시

趙洪濟과장

○어항시설사업
—완공위주의 어항건설
•개발어항의 완공촉진 및 외곽시설 우선시공
•지역별 주요어항의 중점개발 및 소흑산도항복구 완료
—주요 어항의 조기착공
•올림픽 개최이전 석재 전량확보 추진
•태풍 진로권의 태풍기 이전 주요공정 완성
—어항 기능의 제고
•노후·피해시설의 견실복구
•취약·미진시설의 보수·보강
—2종어항의 지정 및 시공 기술 지도
•시·도의 2종어항 신규지정 규제
•설계·시공기술 지도교육실시

○어항시설 피해최소화 대책 추진
—주요어항의 심해파, 설계파 추정 및 안전도 진단
•동·남해의 심해파 및 어항별 설계파 추정
•동해안 각어항(18개)의 시설물 안전도 진단
—2종 어항의 기본조사촉진
•시·도의 2종어항 기본조사실시 촉진
•구조·단면 등 시설계획 확정 시행 유도

○선진 기술도입 활성화
—어항토목분야의 선진기술 습득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국내외 기술정보 교류 증진

결 의 문

나는 어민의 생활 기반이 될 어항건설 공사 도급업체의 책임자로서 그 임무가 막중함을 통감하고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를 위하여 진력할것이며, 복지사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나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고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임을 명심한다.
• 나는 도급한 건설공사의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나는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불미사례나 부조리 발생소지를 단호히 배격한다.

1988년 5월 20일

水產廳 생산국장에 鄭甲來씨 임명

정부는 지난 4일자로 수산청 生產局長에 鄭甲來 연근해과장을 승진 발령했다.

부산수산대를 나와 수산진흥원 지도과장 어선과장 연근해과장 등 생산과 직결되는 부서에만 주로 근무해 앞으로 복잡한 생산업무를 처리해나갈 수완을 기대해도될것같다。 특히 연근해과장 재임시에는 선복량을 고시하는것을 비롯 자원보호령등 연근해어업과 관련한 각종 법률을 소신껏 개폐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漁港투자擴大 對政府건의의

韓國漁港協會

어민이 安心하고 살수있게 每年1千億이상 投資해야

한국어항협회는 어항시설의 긴요성을 강조, 제6차 경제사회발전 계획기간중 해마다 1,000억원이상을 투자하여 지정항의 기본시설만이라도 완비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수산청을 비롯한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어항이 어업의 근거지로서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지이며, 어촌과 지역사회의 핵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호벽 역할을 하는 등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공익시설임을 강조하고, 특히 90년대에는 어항의 역할이 연근해의 고도이용을 위한 거점기반으로서 더욱 중시된다는 것을 들어 어항예산 비중이 일본국처럼 수산관계예산의 53%이상을 차지하여 어민이 안심하고 어촌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의 태풍 진로권에 놓여 연례적으로 태풍과 폭풍·해일 등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 82년에서 86년 사이 연평균 어선 723척·어항 184개소가 재해를 당해 무려 121억1천2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90년에는 어항이 200해리 경제수역내의 고도이용을 위한 연근해 종합개발의 거점으로서 역할도 담당하게 되어 해양성 관광 등 그 기능이 다양화할 것이며, 따라서 어항의 공간활용은 매우 유용하고도 고도화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토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항과 해안의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2면에전문〉

어항개발 현황

		총계획	'87까지	'88계획	'89이후	'87까지 실적대비	비고
계	투자/완공	386개항	111	70/13	262	28.7(%)	
	물 량	164km	99	5	60	60.4	
	금 액	5,130억원	2,264	453	2,413	44.1	
제1·3종	투자/완공						
	물 량	61	26	25/ 3	32	42.6	수산청관리
	금 액	66	39	3	24	59.1	
		3,893	1,929	393	1,571	49.6	
제2종	투자/완공	325	85	45/10	230	26.2	시·도관리
	물 량	98	60	2	36	63.3	
	금 액	1,237	335	60	842	27.1	

漁港時論

漁港開發은 先決課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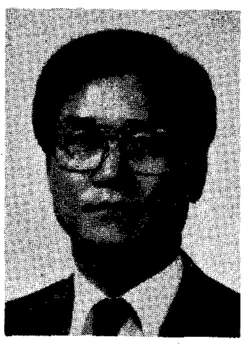
先進수산국으로 발돋움위한

金景澈 〈中央日報 논설위원〉

현안과제의 하나인 산업간 불균형문제에서 농업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도 많고 주장도 무성하지만 수산문제는 전면에 부각이 잘 안된다. 산업인구의 분포에서 볼때 농업인구보다는 수산인구가 적은 탓도 있으나, 정책당국의 수산업에 대한 기본 인식이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지않나 생각된다.

우리는 어차피 자원빈곤으로 천혜의 자원을 최대한 개발·이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긴요하다. 그런의미에서 농업기반 확충은 물론, 수산자원 개발등 자연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같은 노력이 균형을 잃고 특정부문에는 집중되지만, 또 다른 부문에는 소홀하다. 그결과는 산업간 불균형의 심화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 나라의 수산업은 비록 원양어선들이 5대양을 누비기는 하지만, 공업·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필귀정에 해당한다.



産業간 均衡發展위해서도 喫緊

漁民의 「삶의 質」向上과도直結

어항을 보면 우리 수산업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항이라면 수산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어업기반시설에 해당하며, 어항없는 수산업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어항시설은 취약하기 이를데 없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경제개발에도 불구하고 어항은 개발과 유지·관리에 너무 소홀했다.

어업활동의 근거지로서의 어항은 있을만한 곳이면 연안선 어데고 있어야 되고,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어선의 안전정박, 출어준비, 어획물의 하역처리, 어민들의 복지생활을 위해서는 어항시설의 완비가 불가결하다.

우리실정은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러 수산업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해안선총길이 1만2천8백km의 연안에 모두 1천9백41개의 어항이 분포되어 있기는 하나, 어항다운 어항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수산청에 따르면 수산청지정관리의 1·3종 어항은 61개,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2종 어항은 3백25개 밖에 안된다. 나머지 1천5백55개어항은 어항법과 무관한 어촌부락단위의 지역주민편의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군소·소규모 어항이니 우리의 어항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도 명백하다.

정부에서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정도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76년까지 10년간 어항개발에 연평균 14억원씩 투자했고, 그후 81년까지 10년간은 3백46억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사실상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것은 5차경제개발계획때인 82년~86년때다.

이 기간에 어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1천7백47억원을 투자했기에 어항이 이정도라도 된 것이다. 일본의 87년 한해 어항투자실적 1천7백억엔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일본은 수축·개량사업에만 이정도의 투자를 한점에서 볼때 더욱 대조적이다.

정부는 6차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오는 91년까지 3천2백62억원을 어항개발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완벽한 어항시설의 필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항개발은 선진수산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점을 명심하여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기를 당부한다.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항 개발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것이며, 그 결과는 66만 어민들의 소득수준·삶의 질향상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漁港法개정·航空촬영·管理方案등

協會, 業務課題設定

한국어항협회는 어항법 개정과 어항별 항공사진 촬영·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금년도에 추진할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계획을 수립, 수산청과 협의 중이다.

협회는 현 어항법이 지난 69년 5월19일 제정된 이래 19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사회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변하였고 이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漁港予算增額을위한對政府建議文〈全文〉

올해는 우리 나라가 민주화발전을 향한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유사이래 최초로 인류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는 해로서 우리 어항인들은 벅찬 감격과 기대속에서 모든 대사가 성공리에 이루어지도록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선진국대열로 끌어올리는 경제사회발전계획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어항인들은 어항이 어느 공익시설보다 그 역할이 중요하고 시설이 긴요한데도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벽지나 낙도에 산재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뿐더러 해마다 큰 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관계당국에서는 다음 사정을 통찰하시와 과감한 투자확대로 하루속히 복지어항어촌건설이 이룩되도록 충심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어항은 고급단백 식량을 공급하는 기지이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호벽 역할을 하나, 그 시설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항은 어업의 근거지로서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지이며 어촌지역사회의 핵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호벽 역할을 하는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공익시설입니다. 그러나 어항은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 즉 도로 등과 같이 전국민이 직접 보고 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과 긴요성·공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부의 경제사회발전계획 등에서 다른 공공시설 분야에 비하여 중요성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제규모가 확대되었고 경제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국민생활도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읍니다만 어촌사회의 핵이 되어 있는 어항은 경제개발계획기간 중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공업화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저하되어 도시 및 타산업지역과 발전의 균형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76년까지 10년간 어항개발에 연평균 14억원이 투자됐고 그후 81년까지 10년간은 모두 346억원의 투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것은 5차경제개발계획기간인 82~86년간이며, 이 기간에 어항에 대한 투자가 다소 확대되었읍니다.

일본의 87년도 한해 어항투자실적 1,700억엔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 어항인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중점목표를 지역간의 균형발전에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히 어항종점개발로 낙후되어 있는 어항 어촌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선복량과 수산물생산의 대폭 증가로 어항시설확대가 긴요하나 투자규모는 매우 부족합니다.

어항은 그 역할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어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기본시설의 완비가 긴요합니다. 현재

漁港은 人命·財産보호하는 防護壁
船腹量증가에 맞게 施設擴大해야
1·3種港完工率겨우42·6%不過
87년한해에 6百73億4千万원被害

우리 나라 어선은 93,037척으로서 1962년의 45,504척에 비하면 205%가 증가되었으며, 그 규모도 적정선형으로의 이행, 어장의 광역화와 업종의 다각화로 어선이 대형화되어 1962년도에는 총 162천G/T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884천G/T으로 선복량이 546%나 대폭 증가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생산량도 1962년도의 470천M/T에서 1987년도에는 3,332천M/T 생산실적으로 무려 709%의 물동량이 증가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어선규모의 대형화와 물동량의 대폭 증가로 어항의 수요여건이 확대됨으로써 어항건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긴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 어항은 어항법에 의한 지정항 386개와 소규모항 1,555개항이 있으나 시설이 전혀 없는 항, 황천시에는 불충분하여 효율적인 어업활동이 되지않는 항, 시설이 취약하여 어선이 타항으로 피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항등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읍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서 해안선이 12,800km로 길고 도서가 많아 대부분의 어항은 낙도와 외해에 노출되어 파랑의 영향을 직접 받는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 항간의 거리도 평균 33km나 됨으로써 전 어선의 80%이상이나 되는 소형선들이 황천시에 피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매년 어항기본시설에 투자는 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면 매우 빈약하여 현재 1·3종항의 완공률은 4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기상 해양등 자연조건과 어업여건이 비슷한 일본국의 경우 정부가 7차에 걸쳐 어항정비계획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88년부터 93년까지 8차 어항정비계획을 수립 27,800억엔(166,800억원)을 투자하여 새해양법시대에 대응하는 어항의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지금까지의 연간투자규모도 국민총생산의 0·06%, 수산예산의 53%이상을 어항정비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나라는 연평균 350억 정도로 국민총생산의 0·04%, 수산예산의 38%에 불과하고 일본의 어항개발투자에 비하면 그 규모면에서 빈약하다 하겠읍니다.

어항시설 부족으로 해마다 수산시설 피해가 막심하여 항시 불안과 위해를 느끼고 있읍니다.

우리 나라는 서태평양의 태풍진로권안에 놓여 연례적으로 태풍, 폭풍, 해일 등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해마다 연평균(82~86)어선 723척과 어항 184개소가 재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액이 무려 12,112백만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특히 87년에는 셀마 및 다이애너 호등 대규모 태풍의 내습으로 어선 6,593척을 포함하여 어업시설피해액이 67,345백만원이나 되는 큰 재해를 입었읍니다. 이러한 큰 재해는 두말할 나위없이 어항기본시설의 미비에 큰 원인이 있읍니다.

현재 어항시설은 어선의 수용수요에 절대량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기존항도 그 규모가 적어 항내가 매우 협소하여 황천시는 밀집대피로 어선 상호간의 충돌피해가 많으며, 특히 10G/T미만의 소형선이 80%이상이나 되고 항의 취약 때문에 항내에서 대부분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상례입니다.

소규모 어항은 간이시설로서 구조적인 면에서 취약하고, 지방관리어항은 개발수요에 비하여 재정이 부족하여 해양의 물리적인 조건조사나 지반조사 등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미흡하여 내구력이 허약, 설계파고이상의 파랑 내습시 방파제 월파 및 제체(堤體)파손으로 어선과 어촌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우리 어민들은 항시 불안과 위해를 느끼고 있읍니다.

90년대의 어항역할은 연근해의 고도이용을 위한 거점 기반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어항은 어선안전을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생산활동과 유통기지로서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읍니다. 뿐만아니라 새해양법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어업정세가 많이 변화하여 90년대에는 200해리 경제수역내의 고도이용을 위한 연근해종합개발의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소득증대와 경제사회의 변모로 어항은 해양성 관광과 레크레이션의 도입, 도시와 어촌간 교류의 장소로서 그 기능이 다양화 될 것이며 어항과 어촌의 공간활용은 매우 유용하고도 고도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항이 이러한 시대성에 부응하도록 시급히 개발되어야 하며 국토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도 어항과 해양의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항시설의 중요성과 긴요성 그리고 공익성과 낙후성을 개관할 때 어항시설은 조속히 완비되어야함을 거듭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해양법시대를 맞이하여 변천하는 새정세에 대응하고 우리가 해양영토를 확보하는 기지로서도 그 역할이 막중하며 국토보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어항시설계획을 보면 483억원으로서 4,800m를 시설할 계획이나, 이 계획량은 앞으로 건설계획물량 63,645m(1·3종항) 중 7·6%밖에 안되는 물량으로서 지정항만 완비하는데 13년이상이 소요되므로 어항시설의 긴요성을 감안, 연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 기간중에 지정항에 대한 기본시설만이라도 완비해주시기 바라며 어항예산의 비중이 일본국의 예와 같이 수산관계예산의 53%이상 차지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여 하루 빨리 어항이 완비되어 우리 어민들이 재난없이 안심하고 어촌에서 살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하오니 현찰하시와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水産政策大討論會서

漁港투자擴大促求 어항법도補完토록

孫井植會長 / 劉忠烈教授

2천년대의 수산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수산정책대토론회」가 4월 18일 정부 제2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윤근환농림수산부장관과 이동배수산청장을 비롯한 수산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동안의 수산정책을 평가하고 2천년대를 향한 수산정책의 방향과 수산관계 법령의 정비방향 그리고 수산기구의 개편방안 등을 놓고 수산관계 교수와 수산단체장, 어민대표 등 모두 47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인 이날 토론회에서 손정식회장은 어항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시키는 유통의 기지일뿐더러 특히 어획물의 양육과 출어준비를 하는 생활활동의 기지로서 또한 어촌지역사회의 핵으로서 막중한 역할이 있음을 들어 어항예산을 해마다 1천억원정도를 투자하여 오는 91년까지 기본시설을 완공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학계대표인 유충렬부산대학교 교수도 수산업도 쌀처럼 생존산업으로 관념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항시설의 투자확대에 언급, 어항법을 재검토 보완하여 꼭 필요한 지역의 어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강조했다.

〈아래사진·수산청대토론회〉

予算增額적극反映

李東培廳長 團體長간담회서

李東培 수산청장은 명년도의 어항투자를 올해보다 크게 늘려 예산에 반영하며, 어항법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 현실정에 맞게 개정보완하고, 어항행정기구도 수산행정기구 개편에 포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배 수산청장은 지난 4월 15일 하오 수산청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및 등록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어항협회도 4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어항협회처럼 육성시켜 어항업계의 권익옹호에 이바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우리 나라 어항이 지난 87년말 현재 개발율이 1·3종항의 경우 42·6%에 불과한 것을 지적, 어항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증액하여 어항이 어촌지역사회 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는 91년까지 기본시설을 완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손정식 회장은 어항투자에 대한 증액과 함께 지난 69년도에 공포된 어항법이 현실에 알맞게 개정되어야 하며 어항행정기구도 확대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회장은 또한 한국어항협회에대한 정부지원도 촉구했다.

알림

「어항소식」발행일자를 15일에서 25일로 변경하였읍니다.

어항관련소식이 대체로 매월말로 집중되는 경향에 따라「어항소식」발간일을 이 추세에 맞춰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혜량있으시기 바랍니다.

動靜

▲李東培수산청장은 지난 7일 어버이날을 맞아 청내 직원가운데 7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39명에게 부모에게 드릴 선물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

▲李東培 수산청장은 부산수산대학 교수와의 간담회 및 동산대학 산업대학원(수산경영인 60명)에서 수산업 현황과 당면과제에 대한 특강을 하기 위하여 5월18일(수) 부산에 출장.

▲李東培 수산청장은 불법어업추방의 달(5월)을 맞아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李청장은 담화를 통해『수산자원은 우리 당대는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산』이라고 전제하고『지금까지 불법어업을 해온 어민들이 하루속히 합법어업으로 전환하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孫井植 회장과 김영환 이사는 4월 20일 하오 원양협회 사무실 이전 리셉션에 참석.

인사발령

▲徐承旭(감사담당관) ▲趙祐衍(행정관리담당관) ▲朴騏哲(원양개발담당관)▲金相烈(어정과장) ▲成耆憲(협동조합 과장) ▲玄봉계(제조과장) ▲裵平岩(자원조성과장)▲柳炳舜(시설과장) ▲鄭昌世(어선과장) ▲金基洪(수산진흥원서무과장) ▲金祥秀(수진대천연구소장)▲吳進秀(수산물검사소서무과장) ▲閔祥基(수검제2검사과장) ▲辛尚浩(수검 부산지소장) ▲崔明林(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행) ▲金敏鍾(수진충무 연구소장직무대행) ▲崔在陽(청장비서관직무대행) ▲李臣馥(수산청)。

―水協中央會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30일 부장급승진자 3명의 보직과 10명의 부장을 5월1일자로 전보발령했다.

승진보직 및 전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사업부장 許仁九(노량진 지점장) ▲홍보실장 安重基(홍보시실장) ▲조사부장 李玉千(비서실장) 〈이상 3명승진〉▲기획실장 金昇烈(기획조사부장)▲지도부장 魚允琪(강원도 지부장)▲유통부장 張相漢(경북도 지부장)▲자금부장 柳會榮(저축자금부장)▲저축부상 金箕淅(충남도지 부장)▲검사부장 嚴在九(경남도지부장)▲강원도 지부장 金東輝(새마을지도부장)▲충남도지부장 李明儀(검사부장)▲경북도지부장 韓玉鎭(판매사업부장)▲경산남도지부장 金聖鎬(유통부장) 이상 10명 전보〉

협회기금

▲孫井植한국어항협회 회장과 김영환이사는 한국어항협회 회관건립기금으로 각각 20만원을 쾌척.

쾌유기원

▲지난 5월12일 성호(주) 송재성 회장은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 5월말에서 6월초순에 귀국.

회비납부

▲신우건설 주식회사 김낙범(분담금) ▲삼부토건 주식회사 조남욱(87분담금) ▲조홍공영 최봉영(분담금)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고달익 조합장(회원가입비)

협회내방

▲김시문(수산청시설국장)▲조홍제(수산청시설국어항과장)▲김민영(제주수산연구소소장)▲김봉훈(서귀포 수산업협동조합장) 이장희(수산도서출판 장려회 회장) ▲송형주(외환은행 암사동 지점장) ▲주홍장(삼원어업(주) 회장) ▲서승욱(수산청 감사담당관) ▲김상열(수산청 어정과장) ▲정성화(농축수산유통정보 편집국장) ▲최명림(수산청 기획예산담당관) ▲정해택(수산청 기획예산계장) ▲배석재 (수협자재부) ▲배평암(수산청 자원조성과장) ▲천인봉(수산청 자원조성과 계장) ▲김동원(동아상호신용금고·회장) ▲김일재(주) 범신기획·회장) ▲구자천교수(정일평가 사무소) ▲이왕렬(한국유통주식회사 대표이사)

漁港행정職制改正案제시

東·西海에漁港修築事業所등

廳에선政策기능만 設計監督등下部로

孫井植회장 水産行政조직合理化方案으로

수산행정조직의 합리화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협의회가 지난 5월10일 상오 수산진흥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연구 목적과 내용 범위 그리고 수산행정 수요변화에 대응한 지침 등을 논의했다.

수산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산청 기구개편이 한국수산진흥회 용역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연구하게 됨에 따라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오석홍교수와 안해균교수, 최병선교수가 참석했으며, 수산계에서 김재철 한국수산진흥회 회장, 차상회 한국수산진흥회 부회장, 최익성 전 수산청차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 회장, 김영환 한국어항협회 부회장, 김병식 한국수산신보 고문, 김관은 인천수산인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수산청 기구를 부로 승격하여 기능별로 재조정하고 지방청을 설치하여 취약한 수산행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자리에서 손정식 한국어항협회 회장은 어촌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적 기반시설인 어항의 경우 그동안 규모는 물론 개발 수요가 점증하는 추세이고 이에따라 어항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산청에서는 정책적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행정 수요와 조직운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어항수축사업소를 따로 설치하여 집행적 기능을 이양함으로써 어항개발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식회장이 밝힌 어항행정 직제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어항과 공사 1, 2담당 및 시설과 심사담당을 어항과 공사담당으로 폐합 축소하고, 동서해해역(포항, 군산)에 어항수축사업소를 신설하되 여수어항관리사무소를 확대하여 남해어항수축사업소로 개칭하며, 어항과 분장사무중 집행적인 설계 감독, 유지 관리업무를 어항수축사업소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88漁港공사契約

12대부분締結 月限竣工

수산청이 올해 수축대상 어항의 공사계약을 시공사와 대부분 체결함으로써 금년도 어항수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산청은 관리어항인 1·3종항 중 올해 수축 대상인 21개항의 항별 공사계약을 회원사와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 따라 지난3월에 14개항, 4월에 6개항 그리고 5월에 1개항이 착공되었다. 이들 수축대상 어항은 빠르면 오는 9월 초순에, 늦어도 12월말까지는 모두 준공된다.

어항별 공사계약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야진:관급액 352,479,200원。계약 6,000,000원(예산액 900백만원)(착공일 3월15일, 준공기한 12월10일):신우건설

■격포항:관급액 121,004,150원。계약 1,123,200,000원(예산액 1,300백만원)(착공일 3월12일, 준공기한 11월6일):대한토건(합)

■덕산항:관급액 204,881,150원。계약 4,955,000,000원(예산액 700백만원)(착공일 3월11일, 준공기한 9월6일):초흥공영

■안마항:관급액 123,188,840원。계약 1,024,100,000원(예산액 1,200백만원)(착공일 3월14일, 준공기한 11월8일):남진건설

■불전항:관급액 125,860,100원。계약 1,124,500원(예산액 1,300백만원)(착공일 3월9일, 준공기한 12월3일):영생토전

■위미항:관급액 1,056,889,930원。계약 8,773,700,000원(예산액 1,100백만원)(착공일 3월15일, 준공기한 12월9일):서해

■방어진항:관급액 222,339,930원, 계약 6,553,000,000원(예산액 910백만원)(착공일 3월19일, 준공기한 12월13일):임광토건

■욕지항:관급액 37,343,290원。계약 540,400,000원(예산액 600백만원)(착공일 3월22일, 준공기한 10월17일):영생토전

■신양항:관급액 1,378,600,830원。계약 1,230,537,000원(예산액 2,000백만원)(착공일 3월24일, 준공기한 11월17일):세기건설

■소안항:관급액 76,155,410원。계약 968,000,000원(예산액 1,100백만원)(착공일 3월28일, 준공기한 11월22일):금광기업

■사천진항:관급액 168,601,270,계약 1,421,310,000원(예산액 1,800백만원)(착공일 3월30일, 준공기한 12월24일):신풍건설

■양포항:관급액 322,989,750원, 계약 3,110,800,000원(예산액 3,600백만원)(착공일 3월28일, 준공기한 12월31일):삼건사

■하동항:관급액 80,092,540원, 계약 682,500,000원(예산액 800백만원)(착공일 3월28일, 준공기한 11월22일):성보건설

■정자항:관급액 315,949,710원, 계약 6,588,900,000원(예산액 1,000백만원)(착공일 3월19일, 준공기한 11월13일):성호(주)

■등포항:관급액 381,645,590원, 계약 1,413,000,000원(예산액 1,900백만원)(착공일 4월7일, 준공기한 12월31일):임광토건

■대진:관급액 172,922,400원, 계약 312,070,000원(예산액 1,000백만원)(착공일 4월12일, 준공기한 10월8일):상호산업

■현포항:관급액 139,786,280원, 계약 1,216,600,000원(예산액 1,400백만원)(착공일 3월21일, 준공기한 12월15일):효성종공업

■모슬포항:관급액 1,788,675,880원, 계약 1,556,290,000원(예산액 2,274백만원)(착공일 4월14일, 준공기한 12월31일):아남건설

■안흥항:관급액 159,266,830원, 계약 2,530,000,000원예산액 2,764백만원)(착공일 4월6일, 준공기한 12월31일):조흥공영

■국동항:관급액 116,511,720원, 계약 5,574,491,000원(예산액 700백만원)(착공일 4월18일, 준공기한 12월13일):남화토건

■연도:관급액 79,140,970원, 계약 1,270,000,000원(예산액 1,500백만원)(착공일 5월3일, 준공기한 12월28일):대한토건(합)

深海波추정中間보고회 8月初까지調査마무리

수산청은 지난 4월15일 하오 동·남해 해역별 심해파 추정 중간보고회를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연구소 회의실에서 열고, 해양연구소가 그동안 수행한 기상자료 조사 및 해상풍 추정·파랑자료 조사관측·파랑추산방법·주요파랑추산모델·하이파 모델에 의한 결과·파랑자료의 통계처리 등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수산청은 동·남해안 전 해역의 설계 심해파를 정밀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함으로써 내습 파랑에 의한 어항과 항만 등 해상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시설물의 대응력을 높이는 설계와 함께 이들 어항과 항만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연구소에 동해와 남해의 심해파 추정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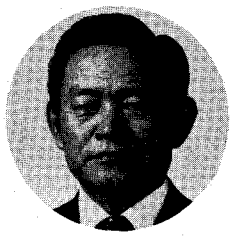
수산청에서 조홍제 어항과장외 5명과 항만청 건설과·인천항 건설사무소장·건설부 공업항과 등 관련 공무원 그리고 서울대학교·안수환 교수·명지대학교 편종근 교수·한양대학교 나종열 교수와 해양연구소에서 강시환 박사 외 8명·대영엔지니어링 정공일씨·유일통합기술단 이회윤씨·세광종합기술단 홍성대씨 등 모두 29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양연구소는 중간보고를 통해 동해의 경우 동해선풍을 고려하여 설계파를 결정하고, 태풍시 관측자료와 국·내외 파랑관측자료를 입수 이용하며, 설계파 추정 및 각 어항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산청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해상풍과 파랑을 관측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연구소는 그동안 동·남해안에서 기본자료 조사와 해상풍과 설계 심해파를 추정했는데, 오는 8월 7일까지 모든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漁港人」국회進出

趙南煜사장 高世鎭사장

제13대 의원으로



趙南煜사장

高世鎭사장

어항시공업체인 三扶토건주식회사 趙南煜사장과 주식회사 瑞海대표이사 高世鎭사장이 지난 4월 26일의 제13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 어항업계의 축하와 기대를 받았다.

趙南煜사장은 민정당 전국구의원으로, 高世鎭 사장은 무소속으로 제주시에서 차점자인 민정당의 현경대후보보다 7,519표가 많은 39,239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는데, 어항업계는 모처럼의 「어항인의 국회 진출」을 크게 반기면서 앞으로 국정에 어항에 관련된 현안이 적극 반영되어 어항개발이 더욱 촉진되고, 따라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풍요한 복지어촌건설」이 앞당겨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趙南煜의원과 高世鎭의원의 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趙南煜의원

▲충남 부여 출신(55세)
▲경기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외자청 구매국 조달청 내자국 근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 총무과장 총무국장
▲삼부토건주식회사 상임감사
▲1983·2·28~현재 삼부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1985·6~현재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장
▲1984·1~현재 민정당 재정위원 국토개발분과 수석부위원장(현재재임중)

■高世鎭의원

▲제주도 출신(55세)
▲한양대 행정대학원 수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 지부장
▲제주 상공회의소 회장
▲88올림픽 제주도 추진위원회 이사장
▲제주로타리클럽 회장
▲제주 지방검찰청 선도위원협의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 협의회 회장
▲제주 개발공사 대표이사
▲(주)서해 대표이사

漁港會舘건립首肯 次期理事會서再檢討

分担金納入회원사에會費留保

한국어항협회 자립책의 한 방안으로 부의된 「어항회관」 건립안이 긍정적인 반응속에 구체적으로 협의된다

지난 5월20일 하오 수산청에서 열린 88어항시설공사 간담회에 이어 열린 한국어항협회 제5차 이사회에서는 ①시부터 연간 회비 20만원을 유보하도록 하는 집행부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어항회관 건립기금 모금안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사별로 신중적으로 검토하여 차기이사회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특수시멘트 전문생산업체인 「東鉉特殊시멘트 工業株式會社(대표·金東駿)」가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어항 및 항만공사용무수축 고강도 초속경시멘트인 「하이」벡을 최근에 개발해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산청에서 조홍제 어항과장외 5명과 항만청 건설과·인천항 건설사무소장·건설부 공업항과 등 관련 공무원 그리고 서울대학교·안수환 교수·명지대학교 편종근 교수·한양대학교 나종열 교수와 해양연구소에서 강시환 박사 외 8명·대영엔지니어링 정공일씨·유일통합기술단 이회윤씨·세광종합기술단 홍성대씨 등 모두 29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양연구소는 중간보고를 통해 동해의 경우 동해선풍을 고려하여 설계파를 결정하고, 태풍시 관측자료와 국·내외 파랑관측자료를 입수 이용하며, 설계파 추정 및 각 어항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산청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해상풍과 파랑을 관측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연구소는 그동안 동·남해안에서 기본자료 조사와 해상풍과 설계 심해파를 추정했는데, 오는 8월 7일까지 모든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漁港工事용시멘트開發

이제품은 활성도가 높은 $11C_{a}O \cdot 7Al_{2}O_{3} \cdot CaF_{2}$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특수반응으로 생성된 고유산염에 의해 수화반응이 빠르고 결정구조가 치밀하게 조직돼있어 2~6시간이내에 실용강도를 얻을수 있을뿐 아니라 저온에서도 단시간내에 실용강도를 발휘할 수 있다는것。

또 이제품은 불리딩이 없고 수밀성이 양호해 무수축 고강도이며 고유산염이 다량 함유돼있어 내수성·내유성·내약품성이 좋아 앞으로 어항 및 항만건설공사는 물론 인공어초 및 방파제 TTP제작 등에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시멘트가 실용압축 강도확보에 보통 7일이 걸렸으나 이 초속경 초강 하이벡 시멘트는 3~6시간이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

會員이 되신 것을 祝賀합니다

東海區機船底引網
水産業協同組合
組合長 鄭憲永
專務 崔炫錫

大型機船底引網
水産業協同組合
組合長 李壽仁
專務 吳福萬

濟州市
水産業協同組合
組合長 高達翊
專務 高璟珍

楸子島
水産業協同組合
組合長 朴鍾炫
專務 朴養奎

黑山島
水産業協同組合
組合長 朴龍善
專務 康東豪

三千浦
水産業協同組合
組合長 李方鎬
專務 金東稷

莞島郡
水産業協同組合
組合長 申憲均
專務 金昇

曉星重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會長 趙錫來
代表理事社長 孫尙模

성인병예방하는 보리

우리 나라는 오랜 세월을 채집 과정에 머물다가 농경을 시작한 것은 6~7세기 경이고 초기의 경작물은 피, 기장과 같은 잡곡이었으며 5세기경에 이르러 콩, 쌀, 보리, 밀등을 경작하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흔히 「꽁보리밥」 「보리고개」등 가난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던 보리는 쌀과 더불어 오랫동안 우리들의 주식으로 이용되어져 왔고, 겨레의 애환을 함께 해온 참으로 순박하고 정겨운 곡식이다.

그러나 최근 쌀 농사의 연속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해 주곡으로서의 보리의 역할이 퇴색되어 감에 따라 보리의 생산량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소비량 또한 크게 줄고 있다.

비타민B군·칼슘보강

한편 보리는 성인병을 예방해 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어 보리를 비롯, 보리를 가공한 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대도시에서 꽁보리밥이 유행하는가 하면 한때는 보리쌀 소비량이 갑자기 늘어나 쌀값보다 보리쌀값이 더 비싼 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보리의 장단점을 고려한 보리가공식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새로운 측면에서 보리의 소비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면 보리의 영양성분과 일반적인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보리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인 전분으로 전체의 2/3이상을 차지한다. 쌀에 비해 아밀로스 함량이 높고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낮아 밥을 하면 점성이 낮고 쌀밥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입맛에는 푸석한 느낌을 준다.

보리의 단백질은 홀데인(hordein)이라 부르며 쌀보다 양적으로는 많으나, 아미노산 조성에 있어 라이신, 트레오닌, 트립토판등 주요 아미노산이 부족하여 질적으로는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다른 동식물성 단백질을 곁들여 섭취하면 단백가를 올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리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쌀과 밀 위주의 식생활에서 부족되기 쉬운 비타민B군과 칼슘, 철분등 무기질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입맛이 없는 계절에는 특히 비타민 B_1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섭취가 필요한데 보리혼식은 비타민 B_1의 섭취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보리에는 쌀의 6·5배나 되는 섬유소가 들어 있는데 보리의 섬유소는 장내 세균에 의해 이용되어 비타민 B_2·B_6 및 판토텐산이 합성된다. 판토텐산은 위벽의 점막을 강하게 해주는 콘드로이친 황산을 만드는데 이용되므로 위궤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 B_6는 철분과 함께 빈혈을 예방해 준다.

또한 보리의 섬유소는 혈청내의 과다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성인병을 예방하며, 위와 장에서 생산되는 니트로소아민을 흡착 제거하여 암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도 소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리속에 들어 있는 펜토산(pentosan)이라는 식물섬유가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쌀에 15~20%섞으면 적당

이밖에도 보리는 우리몸의 체질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고 장을 활성화시켜 변비를 해소하여 주며,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리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리는 탄닌과 프레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맛·향기·색깔이 좋지 못하며, 조직이 단단하여 소화력도 떨어진다. 그러나 쌀에 15~20% 정도의 보리를 섞는 것은 보리의 단점을 크게 노출시키지 않으며, 단백질 상승작용 뿐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의 작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더 많다.

요즈음엔 보리의 단점이 제거된 소화가 잘되고 조리하기 간편한 압맥과 할맥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리빵, 보리국수, 보리음료, 보리장떡, 보리고추장 등 보리를 이용한 가공식품도 많이 개발되어 주식으로서 뿐 아니라 부식으로서의 보리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보리는 쌀이 부족했던 시절 가난의 대명사로서의 보리가 아닌 『성인병 예방식품』 『무공해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어 영양의 균형섭취는 물론 부존식량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식량이라 하겠다. 〈농림수산부 제공〉

〈100g 당〉

	열량 Kcal	단백질 g	당질 g	섬유소 g	칼슘 mg	인 mg	철 mg	비타민 B_1 mg	비타민 B_2 mg	나이아신 mg
보리쌀	323	10.3	68.4	2.6	4.0	360	4.0	0.40	0.10	7.0
백미	366	6.8	79.6	0.4	5	100	3.7	0.15	0.08	1.5
밀가루	350	10.4	74.6	0.2	12	101	1.4	0.20	0.05	1.0

82年前부터 築造

漁港 역사

우리 나라의 해안선은 그 길이가 1만2천8백킬로에 이르고, 그 해안선에는 크고 작은 어항이 1,941개가 분포되어 있다.

『배의집』이라고 할 수 있는 어항의 건설에 대한 발자취를 살펴보면 한반도의 연안은 천해의 만이 많아서 옛날에는 별다른 인공을 가하지 않고서도 어선들이 비교적 불편없이 출입할 수 있었고, 어업의 규모면에서도 단순하고 소규모였기 때문에 어항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해온 터였다.

旧韓末인 1906年부터

1919年에 첫漁港지정

이러한 항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건설이 착수된 것은 구한말인 1906년에 5개년계획사업으로 총공사비 3백6십여만엔을 투자하여 부산, 인천, 평양, 진남포, 원산, 신의주, 군산, 목포, 청진, 성진, 마산항을 건설하게 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후 1911년부터는 부산, 인천, 진남포, 평양의 4개항을 확충하여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19년에는 항의 규모있는 개발이 요청되어 지정 어항을 처음으로 설정하고 22개항을 지정(표1)하여 10개년계획으로 총공사비 5백75만엔을 국비 50%, 지방비50%로 투자하게 됨으로써 항의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어항의 기능은 수산물의 집산·운송기지로서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항이 1930년 7월의 2개의 태풍과 1933년 7~9월에 내습한 2개의 태풍이 남한전역을 휩쓸어 그재해가 인명피해 731명 사망, 어선 4천5백여척 파손등으로 막심하여, 이의 피해대비대책을 위한 항의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1930년대에는 22개의 지정어항을 비롯한 주요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었고 이후 계속하여 경북의 강구, 전남의 제주, 어란진, 황해의 대청도, 강원의 속초, 함북의 성진, 청진항 등을 건설하였으며, 공공단체에서는 후포, 묵호, 장승포, 삼천포, 한림, 대천, 거문도, 해주항 등을 국고보조와 기부금으로 건설하게 되었다.

道別	指定漁港 〈표1〉
계	22個港
함북	웅기, 청진
함남	신창
강원	주문진, 죽변
경북	구룡포, 감포
경남	정자, 방어진
전남	안도, 성산포, 서귀포, 위도
전북	죽도
충남	안오
경기	굴업도
황해	연평도, 죽야도, 추도
평남	한천포
평북	원도, 이화포

1940년대에는 세계제 2차대전으로 어항 건설에 투자를 못하였고, 광복후에는 1955년에 발족한 해무청에서 1960년대초반까지 어항건설을 추진하였으며, 1963년부터는 농림부로 이관되어 이를 추진하였다. 1966년에 수산청이 발족하면서부터 어항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67년에 항만법이 제정 시행되고, 1969년에 어항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항만과 어항의 개념이 분리 정립되고 그 건설의 소관도 항만청과 수산청에서 각각 관장, 획기적으로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어항은 그 주요기능이 과거의 수산물운송기지에서 탈피, 어선을 안전하게 정박, 계류시키고, 잡은 어획물을 신속하게 양육처리하며, 선수품의 보급, 어선 어구의 수리등 출어의 준비를 함으로써 명실공히 어업생산과 어획물의 유통기지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촌주민의 생활기반으로서, 수산과 관련한 지역경제개발기지로서, 또한 낙도벽지 어촌의 교통 통신기지로서 어촌지역 사회의 핵심적 기반이 되고 있다.

한글 바로 씁시다

▲사립문=사립짝을 달아서 만든 문.
▲사립짝=잡목의 가지를 엮어 만든 문짝.
▲싸리문=싸리를 엮어 만든 문.
▲아련하다=정신이 희미하다.
▲아렴풋하다=기억이 똑똑하지 않다.
▲아스라하다=흐릿하고 아득하다.
▲자갈=작은 돌.
▲재갈=말의 입에 물리는 쇠.
▲차마=차마 그럴수가 있나(부사).
▲참아=고생스럽더라도 참아라(동사).
▲케케묵다=생각이 썩었다. 쓸모가 별로 없다.
▲쾨쾨하다=냄새가 고리다(곯아 썩는 냄새).
▲퀴퀴하다=냄새가 구리다.
▲토라지다=마음 먹은 것과 달라서 싹 돌아서다.
먹은 음식이 체하여 신트림이 나면서 그냥 썩는다.
▲틀어지다=사귀는 사이가 서로 벌어지다. 꾀하는 일이 어그러지다. 꾀어 틀리다.
▲파닥거리다=날개를 자꾸 쳐서 소리를 내다.
▲팔딱거리다=심장이 팔딱거리다.
▲하나님=기독교의 유일신.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다.
▲하느님=상제(上帝). 기독교의 유일신 이외의 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늘거리다=하느작거리다. 계속하여 가볍고 멋있게 흔들리다.
▲하늘거리다=매우 빠르고 가볍게 하느작 거리다.
▲하동거리다=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갈팡질팡 하다.

生活經濟

'내집'마련 주택부금 이란…

내집마련을 위한 준비자금을 매달 은행에 저축하시면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그동안 저축하신 준비자금은 이를 찾아 내집마련에 보탤 수도 있는 새로운 주택부금제도입니다. 〈주택은행 제공〉

●**가입대상자** : 실지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읍니다.
●**계약기간** : 1,2,3,4,5년제 중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읍니다.
●**월부금** : 최저 3만원이상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매달마다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1만원 단위로 자유로이 내시면 됩니다.
이 부금을 세금우대종합통장이나 무지개종합통장으로 거래하실분은 맨 처음 내신 금액과 똑같은 일정금액을 월부금으로 합니다.
●**이율** : 연10.0%(1년만기 정기적금 이율과 동일)
계약기간중 금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
●**만기지급액 조견표** : 이 부금은 매달 3만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약정납입일에 납입할 경우 월부금 10만원당 만기 지급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부금이자는 매회차별 납입월부금에 대하여 은행에 예치한 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택자금 대출** : 주택자금의 종류
주택신축·주택구입·주택개량 또는 대지구입자금
●**대출대상주택의 규모** : 대지면적이 330m²(약100평)이내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00m²(약30평)이내인 주택
(주택구입자금은 준공후 10년을 넘지 않은 주택에 한합니다.
●**대출자격 발생시기** : 장기저축자일수록 상환기간을 길게하여 드립니다.
*내집 마련주택부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월부금을 최종납입일로부터 6월이상 계속하여 납입하지 않은 분은 대출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만기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6월 범위내에서 대출신청자격을 드립니다.
●**대출가능금액** : 주택신축 또는 주택구입자금은 최고 1,700만원 이내 주택개량 또는 대지구입자금은 최고 600만원 이내로 하되 장기저축자일수록 많은 금액을 대출하여 드립니다.
●**내집마련 주택부금을 근로자 주택저축으로 가입하신분에게는** : 다음사항에 대하여 일반 가입자와 다르게 적용합니다.
세제혜택 : 부금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주민세 및 교육세 면제
(방위세 1.5%만 부담)
월 부 금 : 최저 3만원 이상 최고 15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의 일정금액으로 납입
주택자금대출
•종류 : 주택의 신축, 구입, 개량 및 임차를 함에 필요한 자금
•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85m²(약 25.7평) 이내인 주택만 대출
*임차자금은 저축기간이 12개월이상 경과하신 분에게 최고 6백만원 이내에서 대출하여 드리며,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저축제도

●**주택청약정기예금** : 정기예금과 같은 이율로 이자를 드리며 민영주택(일반 건설업자가 짓는 APT 및 단독주택) 분양 우선권을 드립니다.
•1순위 : 주택청약정기예금 가입후 9개월이상 경과한 분
2순위 : 주택청약정기예금 가입후 3개월이상 경과한 분
•가입대상 : 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가입시 3개월이내 발행 주민등록등본 제출) *독신 세대주의 경우에는 가입시 유소득증명 필요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분양우선권을 드리는 예금으로서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능력껏 저축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1세대 1계좌)
•가입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이내 발행된 것)
−무주택 입증서류
허 가 건 물 :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중 1통
무허가건물 :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중 1통
*단독 세대주의 경우는 소득증명원 추가제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가입대상 : 주택이 없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근로자
−일급여액이 2만4천원이하인 일용근로자
−해외취업자
•월저축한도 : 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최고 15만원

生活經濟